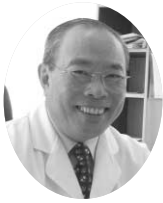


의료시장 개방, 병원 경영 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대처한다

— 일본 의료 시장 개혁을 통해 살펴본 우리의 대처 방안 —



글·하 권 의 |
을지대학 의무부총장 겸 병원장

최근 우리 의료계의 가장 큰 화두는 의료시장 개방이다. 주변에서는 외국계 병원이 국내 의료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제한에 묶여있는 국내 병원들은 당장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도 나온다.

구미 병원들은 자국에서 의료수가가 급격히 줄고, 한번의 의료사고로 병원이 무너질 정도의 천문학적 소송 비용으로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한국 시장에 참여할 경우 합자병원에 브랜드 제공과 소수의 의료진 파견만으로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투자다. 하지만 투자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의 병원들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과실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따라서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 우리 의료시장이 개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료기관들이 우리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 전향적 검토를

그러나 영리병원은 세계적 추세이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영리법인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는 마냥 정부가 부담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AMI(American Medical International) 같은 대형 민간 영리병원들이 국민 건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 의료계는 중소병원들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병원 경영자들의 능력 부족보다는 시장 환경에 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재경부를 중심으로 영리법인 허가를 전제한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도하 개발 아젠다(DDA)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빠르게는 2005년부터도 부분적 시장개방과 함께 영리병원의 탄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정부는 '2004년 경제 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시장 개방과 외자 유치를 통한 서비스업 유치에 의료분야도 예외일 수 없으며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과 합자병원 설립을 위한 협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보건의료발전 계획안을 통해 어느 정도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5조원에 달하는 공공의료 확충, 부실병원 인수 등의 계획에 필요한 총 9조원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시행 과정에서 병원들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매우 의문시된다.

영리병원이 허락되면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경제력에 맞는 눈높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원은 영리성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전문화와 특화가 이루어져 경영, 특히 중소병원의 경영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다.

일본은 이미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영리병원은 일정 수익 이상 낼 수가 없다. 마치 관치 영리병원 제도처럼 부족 부분을 정부가 부담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도 장기간 재정 지원으로 부담이 가중되자 본격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 의료개혁의 핵심은 병원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병원의 영리성을 최대한 강화시키고 있고, 자본주의의 대표적 자금조달 방법인 직접 금융을 허락하고 있다. 의료계에 시장의 법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경영에 경쟁력이 있는 병원은 직접 금융을 통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받아 의료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이 없는 병원은 자연도태되고 말 것이다. 그 동안 일본도 담보물에 의한 은행 대출이 대부분이었다.


영리병원이 허락되면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경제력에 맞는 눈높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원은 영리성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전문화와 특화가 이루어져 경영, 특히 중소병원의 경영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다.

의료질 향상 위에 적정 투자 필수

그동안 우리 의료계는 '의료의 질'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의료 체제라면 '의료의 질'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병원도 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 부문에 환자가 몰린다면,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의료계는 의료의 질 평가와 함께 병원의 경영평가 기준을 마련해야만 한다. 재정이 뒷받침 안 되는 의료의 질은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병원 경영평가 전문가인 민도영 조세연구원이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인 피치 레이팅스의 오사무 고바야시 이사와 실시한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피치사는 아직 한국의 의료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에도 병원의 재무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내 병원들의 정보는 더 열악하기 때문이다. 비교적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피치 레이팅스가 이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 의료시장이 외국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제 국내 의료계도 직접 금융에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영리 병원 제도의 도입은 민간보험 도입을 허용하게 만들 것이고, 곧바로 의료시장을 무한경쟁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 경우 자금력이 딸리는 병원은 의료의 질 확보에 앞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은행대출을 이용한 간접 금융 하나뿐이었던 병원들에게, 앞으로는 직접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낫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직접 금융은 신용평가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금조달 방식이 다양해지면 자연스럽게 병원들은 환자의 유치나 의료의 질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력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병원들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경영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의료계는 의료의 질 평가와 함께 병원의 경영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신용과 마케팅 평가 등 투자자들로부터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경영평가 제도를 시급히 준비하여야만 한다. 만약 우리 시장에 맞는 경영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 의료인들은 완전히 배제된 채 외국 투자가는 물론 상업 자본들의 병원 지배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4